

# 그와 함께 길을 걷다 사실, 기억, 그리고 역사



고재석 高宰錫

## 1. 한국의 유학생에서 조선의 대중사까지

오랜만에 베란다에 나가 신문을 펼쳐 본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오프라인으로까지 번졌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입맛이 쓰다. 들어온다. 두꺼운 영인본과 만해 관련서가 여기저기 쌓여 있는 방은 오늘도 후끈하다. 덥지만 머리 위로 쏟아지는 에어컨 바람이 싫다. 선풍기를 튼다. 의자에 앉는다. 1944년 7월 1일 자 <매일신보> 3면이 부엌에 모니터 위로 떠오른다.

‘사천학도 四千學徒 생산전 生産戰에 진발 進發 최대 능률 발휘하라’ ‘칠대방침 七大方針 곧 실천에 결의로 새로운 총상회 總商會 종료’ ‘필승의 총력전 總力戰’ ‘싸우는 반도 半島 산업 전사 실력 향상 시키는 길’ ‘태도도 건강도 만점 동원학도 動員學徒 인천 조병창 造兵廠 일삭 一朔에 성과’ ‘수출입 신고서 오늘부터 실시 일만 日

滿 관세 철폐 발착지역 發着地驛 통관제 通關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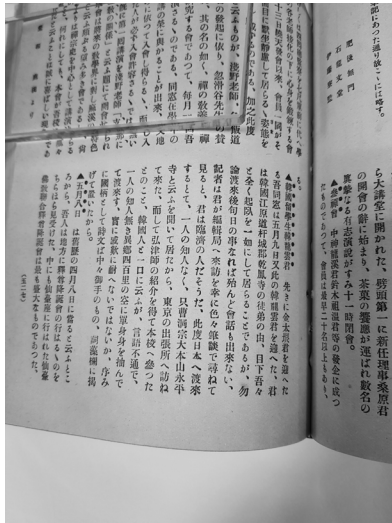
총동원법을 제정하고 전면 징용을 실시하면서 전쟁 수행 인력 조달에 혈안이 되었던 조선총독부. 그들이 악을 쓰며 하달한 기사가 행진하는 군인들을 따라 폴폴 일어나는 흙먼지처럼 눈을 어지럽힌다. 그러나 하단은 약품 광고로 촌촌하다. 어쨌거나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 ‘기사회 생 구급약 オピタイン’ ‘금년 여름도 어느 때 어느 지방에서 적리 赤痢와 장질부사 腸室扶斯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アリヂン’. 그리고 ‘한용운 대사 입적 入寂’이라는 일곱 글자 위에 검은 줄을 그어 놓은 부음 기사가 이들 사이에 희미하게 끼어 있었다.

조선 불교계에 공헌이 큰 한용운 대사는 29일 오후 1시 반 뇌일혈로 부내 內府內 성북정 城北町 222번지 자택에서 별세하였는데 향년 66세다. 고별식은 7월 3일 오후 2시부터 성북정 자택에서 집행한다는 바 대사는 일즉부터 조선 불교유신회, 조선불교사 朝鮮佛敎社 등을 창립하고 불교 혁신에 큰 공적을 남긴 외에 저서도 《불교대전》, 《불교유신》 등 십수 권이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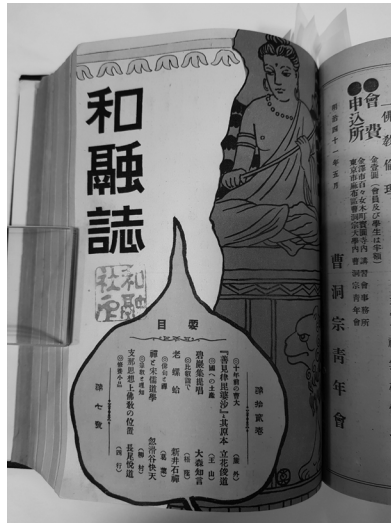
1944년 6월 29일, 전날 아침부터 혼수상태<sup>1)</sup>에 빠졌던 만해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영원한 침묵 속으로 떠났다. 불교계에서는 석 달이나 지난 9월에야 그의 입적 소식을 전했다.

열반계 涅槃界 만해 한용운 대중사 大宗師는 거 去 유월 이십구일 어성북정 於城北町 심우장 尋牛莊 자택에서 입적 入寂 하시었다.<sup>2)</sup>

1) 한영숙, ‘아버지 만해의 추억’ <나라사랑> 제2집(외솔회, 1971) p.92.  
2) <신불교> 14집(1944.9) p.3.



한용운의 근황을 전하는 〈화용지〉 제12권 제6호(1908. 6. 5.)



한용운의 한시 12수가 수록된 〈화용지〉

문득 올해처럼 유난히 무더웠던 2018년 7월 20일, 고마자와대학(예전의 조동종대학) 도서관에서 만났던 청년 만해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날 정보서비스계의 직원 가시마 미치코(鹿嶋みち子)가 책 수레에 담아 가져온 〈화용지 和融誌〉에는 조동종대학 편집국을 찾아와 편집부원과 필담을 나누는 만해의 모습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 유학생 한용운 군.

앞서 김태은 군을 맞았던 우리 동창은 5월 9일 다시 한용운 군을 맞았다. 군은 한국 강원도 간성군 건봉사의 도제인지라 요즘 우리와 함께 기상과 취침을 하고 있다. 물론 도래한 지 10여 일이며 회화도 할 수 없다. 기지는 군이 편집국에 내방한 것을 기회로 이런저런 필담으로 물어보니 군은 임제종 사람인 듯하다. 이번 도일에 한 사람의 지인도 없이 단지 조동종 대본산이 영

평사(永平寺)라는 걸 듣고 있었기 때문에 동경의 출장소를 방문했고, 그리하여 히로쓰(弘津) 스님의 소개를 받고 본교에 왔던 것. 한국인으로 한마디 하면 언어불통으로 한 사람의 지인도 없이 이항 사백 리의 하늘에 단신으로 도래하니 실로 감탄을 금할 수 없지 않은가. 덧붙이면 특색으로 시문은 상당한 솜씨인 바 사조란(詞藻欄)에 실었다.<sup>3)</sup>

한국의 유학생 만해의 근황을 전했다던 1908년 6월 5일과 조선의 대사, 아니 대중사의 입적을 보도한 1944년 9월 사이로 36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그 신산스러운 세월 속에서 그의 모든 문자 행위는 이루어졌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시작된 만해 관련 자료 검색과 채록 작업의 범위가 1908년부터 1944년까지로 설정된 이유가 여기 있다.

《한용운전집》, 《여암문집(如庵文集)》, 《이광수전집》, 《최남선전집》, 《석전문초(石顛文鈔)》, 《석전시초(石顛詩鈔)》, 《옥과(沃坡 이종일 선생 연설집)》, 《만공어록(滿空語錄)》, 《가람 이병기전집》, 《기당 현상윤전집》 등 전집류는 물론 《조선불교통사》, 《동국대학교백년사》, 《3·1 독립운동》 등 여러 자료집… 그리고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를 시작으로 〈화용지〉, 〈소년〉, 〈매일신보〉, 〈조선불교월보〉, 〈해동불보〉, 〈조선불교총보〉, 〈청춘〉, 〈유심〉, 〈독립신문〉, 〈창조〉, 〈동아일보〉, 〈조선일보〉, 〈개벽〉, 〈폐허〉는 물론 〈동명〉, 〈조선지광〉,

3) '同人消息', 《和融誌》第12卷第6號(1908. 6. 5.) 韓國留學生韓龍雲君 先きに金太根君を迎へたる吾同窓は五月九日又此の韓龍雲君を迎へた。君は韓國江原道杆城郡乾鳳寺の徒弟の由、目下吾等と全く起居を一如にして居ることであるが、勿論渡來後旬日の事なれば殆んど會話も出来ない。記者は君が編輯局へ來訪を幸に色色筆談で尋ねて見ると、君は臨濟宗の人だそうだ。此渡日本へ渡來するとて、一人の知人なく、只曹洞宗大本山永平寺と云ふを聞いて居たから、東京の出張所へ訪ねて來た、而して弘津師の紹介を得て、本校へ參つたとのこと。韓國人と一口に云ふが、言語不通で、一人の知人無き異郷四百里の空に單身身を抽んで渡來す、實に感歎に耐へないではないか。序みに國柄として詩文は中中御手のもの、詞藻欄に掲げて置いたから。

〈시대일보〉, 〈중외일보〉, 〈경성일보〉, 〈별곤건〉, 〈불교〉, 〈일광〉, 〈삼천리〉, 〈조선농민〉, 〈천도교회월보〉, 〈혜성〉, 〈신흥조선〉, 〈중앙〉, 〈한글〉, 〈학동〉, 〈선원禪苑〉, 〈조광〉, 〈조선중앙일보〉, 〈비판〉, 〈야담〉, 〈여성〉, 〈신세기〉, 〈문장〉, 〈신불교〉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문과 잡지를 뒤져 가며 자료를 찾았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의 입적 소식을 전한 〈매일신보〉 3면을 펼친 것이다.

열대야 현상이 한 달 이상 계속된 이번 여름. 작업은 쉽지 않았다. 모니터를 보며 아카이브 목록에서 자료를 뽑아내는 제자들과 달리 아직도 고서의 특유한 향기<sup>vellichor</sup>에 익숙한 나는 어두운 밤에 지하 서재로 내려가 자료를 뒤적이곤 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녹록한 방에서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다가 지친 책들에게 미안하다며 중얼거렸다. 또 어느 날은 계단 입구로 쫓겨나 뜨거운 햇살에 책등이 허영게 바스라지고, 곰팡이가 슬어 꺼멓게 썩은 영인본들을 뽑아 뜨거운 바람을 쐬어 주어야 했다. 연구소의 제자를 집으로 불러 그동안 그들이 수집 정리한 자료와 대조하고 새로 발견한 자료를 추가했던 것은 불벌더위가 막바지로 치달은 8월 초였다.

그동안 나온 한용운 전집에는 두 개의 판본이 있다. 하나는 《한용운전집》(신구문화사, 1973) 전 6권이고, 다른 하나는 《한용운문학전집》(태학사, 2011) 전 5권이다. 그러나 전자는 선구적인 업적이긴 하지만 당시 여건상 완벽한 자료 집성을 도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만해와 관련된 일화까지 전집에 포함시켜 정전 확보의 원칙을 어그러뜨리기도 했다. 만해가 풍문과 소문의 주인공이 되는 데 일조한 셈이다. 더구나 이미 반세기 전의 조판 방식이라 젊은 독자들은 읽기 힘들고, 절판되어 구하기마저 어렵다. 반면 후자는 많이 개선된 체제로 나오기는 했지만, 문학작품 위주의 편집이라 그의 전인적 면모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만해가 ‘문리<sup>文理</sup>

가 있는 문자로의 구성은 다 문학<sup>4)</sup>이라고 천명했던 사실을 망각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이 두 전집이 한용운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자료든 빠짐없이 모으고 나름의 원칙을 세워 정리하고 분류하는, 이른바 아카이브 구축 원칙에 충실했더라면 우리는 이런 지루한 작업을 2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자료를 검색하여 폴더에 집어넣고, 때로는 중앙도서관에 가서 원본을 찾고 스캔까지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미안한 적이 많았다. 한자 독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세대인 그들로서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을 터라 더욱 그랬다. 그러나 이들이 이번 작업 덕분에 한용운의 삶과 문학, 아니 한국 현대문학사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게 되었고 한자 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할 때는 내심 흐뭇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를 모르면서 알고, 알면서 모르는 역설의 소유자들 아니냐며 좀 더 힘을 내자고 웃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갔지만 가지 않았다. 아니, 우리는 아직 그를 보낼 수 없고 오늘도 그와 함께 길을 걷는다. 만해연구소는 2016년 봄부터 2024년 2월까지 국내(9회)와 국외(6회)로 나누어 만해로드대장정(서비스등록증 제41-0385191호)<sup>5)</sup>을 다녀왔다. 답사한 지역은 만해 출생지인 홍성을 시작으로 백담사, 신흥사, 증심사, 범어사, 구암사, 심우장, 서대문형무소는 물론 세계 만유의 꿈을 꾸면서 도착했던 블라디보스토크와 고마자와대학이 위치한 도쿄, 조동종 본산 영평사가 있는 후쿠이, 신흥무관학교가 있던 서간도(길림성 통화시 류하현)와 민족의 성지 백두산에 이른다. 아무튼 조지훈이 상재<sup>上粹</sup>한 《한용운전집》을 뛰어넘는 전집을 만들어,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이 되는 2026년에 출간하고 싶다는 열망을 이해하고 기쁘게

4) 〈문예소언<sup>文藝小言</sup>〉, 《한용운전집1》(신구문화사, 1980) p.196.

5) 고재석, 《당신을 보았습니다》(동국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pp.16~29

동참했던 젊은 제자들이 있어 힘들지만 행복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

## 2. 예고되었던 만해 연보의 혼란과 착오

오늘날 세계화의 물결이 기존의 집단 정체성을 침식하면서 민족, 국가, 계급 등과 같은 전통적 집단에 대한 긴밀한 유대감은 사라지고 있다. 인터넷의 출현으로 대두한 가상현실은 역사를 신성한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그리고 이런 역사의 약화 추세는 기억의 부흥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여 그동안 공적인 권위를 누렸던 보편사<sup>History</sup>를 다양한 미시적 영역의 역사들<sup>histories</sup>로 분할하고 있다.

이후 탈역사의 시대를 맞아 역사가들은 ‘숭고한’ 역사에 짓눌려 왔던 개인이나 개별 집단의 주관적 체험을 포함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기억과 역사의 본원적 관계를 진지하게 성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기억보다 우월하게 보이던 역사도 실은 포괄적인 기억 문화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이 밝혀졌다. 그런 의미에서 만해가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했던 회고담은 주목된다. 다만 이번에는 제목과 출전 및 발표 연도만 밝혀 놓고, 본격적인 내용 검토는 2회부터 하기로 한다.

- ① ‘논승려지단체論僧侶之團體’(《조선불교유신론》 1913. 탈고는 1910. 12. 8.)의 짧은 회상
- ②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만주 산간에서 청년의 충에 맞아서’(《별곤건》 1927. 8. 17.)
- ③ ‘아슬아슬한 사지死地를 누경累經한 한용운 씨’—㉑ ‘30세에 노국 유학露國留學 떠나 해삼위海蔘威 항두港頭서 사일死日을 받아’ ㉒ ‘청인 통역과 노국 경관이 구명救命’ ㉓ ‘사선死線에 섰을 때 관세음보살’(《조선일보》 1928. 12. 7~9. 3회 연재)

- ④ ‘남모르는 나의 아들’(《별곤건》 1930. 1. 1.)
- ⑤ ‘나는 왜 승僧이 되었나’(《삼천리》 1930. 5. 1.)
- ⑥ ‘수도승과 금욕’(《삼천리》 1931. 3.)
- ⑦ ‘한용운 韓龍運—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실생활》 1932. 10~11. 2회 연재. 삽화 수록)
- ⑧ ‘서백리아西伯利亞 거쳐 서울로’(《삼천리》 1933. 9.)
- ⑨ ‘북대륙의 하룻밤’(《조선일보》 1935. 3. 8.~14. 4회 연재)

참고로 ③, ⑥, ⑦은 《한용운전집》에 수록되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 소개하는 회고담이다. ①, ④, ⑤, ⑥은 주로 출가를 전후한 사정을 다루고 있으며 ③-㉑ ㉒와 ⑧, ⑨는 1905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진회 첩자로 오인을 받고 수장당할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일을 회고하고 있다. 그리고 ②, ③-㉑, ⑦은 1912년 늦가을 서간도를 둘러보고 돌아오다가 굴라재 고개에서 피격을 당한 사건과 신비체험을 다루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겪은 두 번의 사건은 본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독자들에게도 흥미로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가필을 거쳐 거듭 연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확한 연보를 작성하기 위한 전거로서의 가치 또한 높은 회고담이다. 나아가 유동근의 ‘만해 한용운 씨 면영面影’(《혜성》 1931. 8.)과 ‘한용운 씨는 왜 체머리를 흔드나’(《별곤건》 1931. 12. 1.), ‘그는 왜 중이 되었나’(《혜성》 1932. 1.)와 웅초熊超 김규택이 그린 캐리커처와 만문漫文 등도 소중한 자료로 생각된다. 오늘은 이들의 일부를 참조해서 작성한 것이 분명한 연보의 하나를 보기로 한다.

만해 한용운은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으며 아명은 유천, 호적명은 정옥, 법명은 용운, 법호는 만해다. 1892년 열세 살의 나이로 결혼한 후 1896년 설

악산 백담사 오세암에 은거하여 수년간 머무르면서 불경을 공부하는 한편, 근대적인 교양서적을 함께 섭렵함으로써 서양의 근대사상을 접하게 되었다. 이 무렵 서양 문물에 대한 관심과 세계 정세를 알아보기 위해 연해주로 건너 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만주를 거쳐 1901년 고향의 처가로 돌아와 약 2년간 칩거하였다. 그 후 다시 집을 나와 방황하다가 1905년 강원도 설악산 백담사에서 계를 받고 승려가 되었다. 1908년 잠시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교토 등지의 사찰을 순례하고 조동종대학림에서 6개월간 불교와 동양철학을 연구하였다. 1910년에는 만주로 가서 박은식, 신채호 등 독립지사와 뜻을 함께했으며 귀국 후에는 강연회를 통해 대중을 교화하고 불교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는 당시 조선 불교의 침체와 낙후성과 은둔주의를 대담하고 통렬하게 분석 비판하는 저서 《조선불교유신론》(1913)을 발표하여 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조선불교유신론》에 제시된 한용운의 사상은 자아의 발견, 평등주의, 불교의 구세주의, 진보주의 등이며 이후 그의 모든 행동적 사상적 발전은 이 사상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다.<sup>6)</sup>

위의 연보는 만해가 1896년과 1905년 두 번에 걸쳐 출가했고 1910년에 만주로 건너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1905년에 득도<sup>7)</sup>하고 같은 해 수계를 받았으며, 1912년 늦가을 여러 생각 끝에 서간도로 떠났다가 피격당했다. 이 밖에도 이와 유사한 착오나 실수가 다른 연보에서도 많이 보인다. 사실과 기억 또는 기록과 회고 사이에서 쓴 그의 회고담을 준거로 삼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연보를 작성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우리는 기존의 연보들에 나타나는 다양한 출가 시점<sup>7)</sup>을 통해 역사란 정녕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며 복잡

6) 《동국대학교백년사2》(동국대출판부, 2007) p.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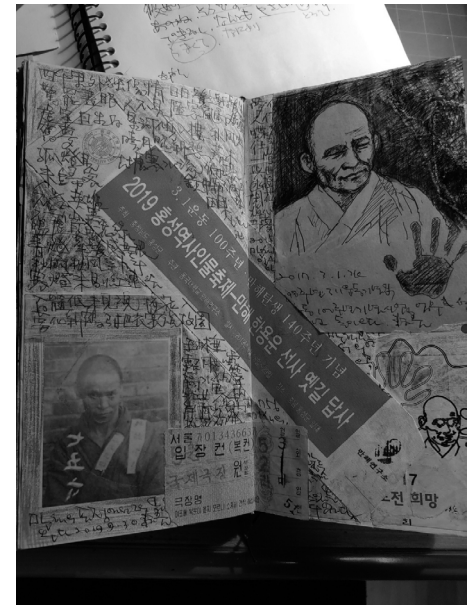
7) 고재석, 《한용운과 그의 시대》(역락, 2010) pp.48~49, p.92. 참조

적으로 구성된 기억의 범주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혼란과 착오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우리들이 회고담을 심층적으로 세밀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이겠지만, 사실은 한용운 자신부터 동일한 사건임에도 그 시점을 달리 기억하거나 과장된 형태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거칠게 말하자면 쌍방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이겠지만 문득 심리학자 페스팅거<sup>Festinger, L.</sup>의 인지 부조화 이론이 생각난다. 자신이 믿는 것과 실제 일어난 일이 다를 때 부조화의 좌절을 겪기 마련인 인간은 그 고통을 줄이고 극복하려면 믿음과 현실 둘 중 하나를 바꿔야 하지만, 현실을 바꾸기 어려우니 결국 자기 믿음에 맞춰 합리화한다는 이론 말이다.

한용운의 회고담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 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역시 자신이 저지른 불명예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과거 기억을 스스로 왜곡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진술할 수 있는, ‘대중사’이기 전에 ‘인간’임에 틀림없다. 물론 우리 역시 예외일 수는 더욱 없다. 하긴 사생활을 공개할 때 자신의 내밀한 감정이나 비밀을 거침없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물며 가혹한 검열의



필자의 만해 스케치

시대였음에랴. 더구나 출가 과정을 만해처럼 여러 번 회고한 승려는 찾아 보기 힘들다. 따라서 그가 아무리 불립문자不立文字와 불리문자不離文字의 경계를 넘나들며 깨달음을 추구했던 선승이자 문사였다고 해도, 글을 쓸 때 외부 검열은 물론 억압과 동일시, 진치와 투사 등 방어기제로 구성되는 내면 검열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터다. 그의 회고담에서 인지 부조화 양상을 읽어 내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뿐인가. “독자여 나는 시인으로 여러분의 압해 보이는 것을 부끄러합니다.” 만해는 이렇게 손사래를 쳤지만, 그야말로 천성적인 이야기꾼이자 문사로서의 면모가 강한 인물임을 우리는 회고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보다 회고담을 본격적으로 쓴 작가 또는 문사라면 춘원 이광수 정도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사는 물론 심우장을 자주 찾아 흠모의 정을 표하고 술잔을 나누었던 가람 이병기가 이렇게 적고 있음은 시사적이다. ‘풍란風蘭과 한란寒蘭의 훈향薰香 속에 벌어지는 만해의 광장 설廣長舌과 벽초碧初의 중용술從用術이 자미滋味스러웠다.’<sup>8)</sup> 또 그의 그림자 뒤를 따랐던 후학들 역시 ‘거만 무쌍하면서도 다정하고’<sup>9)</sup> ‘비분강개가 심하고 다정다한多情多恨의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sup>10)</sup> 그리고 ‘고독 그대로였고 파란 그대로였던’<sup>11)</sup> 만해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부정확한 만해 연보는 이미 예고되었는지 모른다. 파토스적 인간 또는 해방적 관심과 혁명적 정열의 소유자인 한용운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사실을 조금씩 다르게 진술했고, 우리 또한 그의 회고담이나 수필, 일화 등을 무비판적으로 신뢰하면서 세목과 구

체가 다른 심정적 차원의 연보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와 우리 모두 모든 기억은 허술하고 쉽게 왜곡되며, 믿을 수 없고 제멋대로이며, 번덕스럽고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인생은 처음과 중간과 끝으로 이루어지는 원인과 결과의 연쇄다. 이 거대하고 촘촘한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연보란 우연의 나열이 아니라 필연의 연속이며 인과응보의 사다리다. 정확한 연보 작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한용운의 회고담은 자전적이다. 여기에는 대중사이기에 앞서 인간이자 문사로서의 진솔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의 육성을 듣고 민낯을 보기 위해서라도, 아니 한용운과 그의 시대를 총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라도, 다른 말로 바꿔 쓰거나 덧붙이는 일은 뒤로 미루고, 그가 들려주는 말을 좀 더 진중하고 차분하게 들어야 할 것 같다. 그때 비로소 그를 둘러싸고 있는 빛과 그림자를 선명하게 가려볼 수 있지 않을까. 원전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 2회부터 우리는 그 자리에 초대받게 된다. (다음 호에 계속)

8) 《가람 이병기전집9 일기4》(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p.456.

9) 신석정, 《난초앞에 어둠이 내리면》(지식산업사, 1974) p.295.

10) 조지훈, 〈민족주의자 한용운〉《조지훈전집3》(일지사, 1973) p.262.

11) 홍효민, 〈만해 한용운론〉 만해사상연구회 편, 《한용운사상연구》(민족사, 1980) p.31.

고재석 · 동국대학교 석좌교수이며 만해연구소 소장이다. 편저와 번역서로 《만해학술연구총서》(전5권), 《일본문학·사상명저사전》, 《일본현대문학사》(상, 하) 등이 있고, 저서로 《한국근대문학지성사》, 《숨어있는 황금의 꽃》, 《불가능한 꿈을 꾸는 자의 자화상》, 《탕자아湯家의 붉은 기둥》, 《한용운과 그의 시대》, 《수수재 隨樹齋 독서일기》, 《당신을 보았습니다》 등이 있다.